

다문화상담자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다문화 현장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Basic Study for the Education Programs of Multi-cultural Family Counselors : Focus Group Interviews of the Multi-cultural Staffs

김현아*, 이자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Hyuna Kim(haha6082@hanmail.net)*, Jayoung Lee(hycounselor@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현재 다문화상담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다문화상담자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다문화 현장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3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박사 2인과 석사 1인이 실시하였으며, 외부 다문화 전문가 1인에게 검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자료 분석 결과 5개의 범주의 13개 하위영역 46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5개의 각 범주는 다문화상담의 문제점, 효과적인 다문화상담전략, 필요한 다문화적 지식 요소, 다문화적 태도와 인식을 갖춘 상담자 자질, 효과적인 다문화상담의 교육 방식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연구 의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 중심어 : | 다문화상담자 교육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다문화상담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blems of a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as a support for the families in order to suggest efficient education programs for counselor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used interviews of three focus-groups consisting of 11 experts each other, and then the qualitative data was analyzed. The analysis of data was conducted by two doctors and one master and investigated by a multi-cultural counselor. As a result, 5 categories, 13 sub-categories, and 46 definitions were identified. Each five categories were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effective multi-cultural counseling skill, the qualities of a counselor with multi-cultural attitude and recognition, multi-cultural knowledge factors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s. At last, implications, practical use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also discussed in this study.

■ keyword : | Multi-cultural Counselor Education | Focus Group Interview | Multi-cultural Counseling |

1. 서론

한국의 다문화 지원의 대상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1]. 2011년 1월 1일 기준 다문화가족 인구는 574,007명이며,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도 2011년 3월 기준 20,918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들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정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지원 대상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8024760)

접수번호 : #130129-005

접수일자 : 2013년 01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2월 20일

교신저자 : 이자영, e-mail : hycounselor@hanmail.net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상담 관련 연구 또한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문화 종사자 경험[2], 다문화상담모델 탐색 및 매뉴얼[3][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모델[5] 등이다. 기존 종사자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6], 다문화 가족 상담[3], 상담자 경험[2]에만 국한시킴으로써 다문화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상담 관련 모델 탐색이나 다문화상담에 대한 업무 매뉴얼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다문화 상담자의 문화적 편견이나 가치관 인식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상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문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도에 확대되었지만, 다문화종사자들의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부처 공동 진행의 표준화된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하다[7]. 또한 전체 양성 인력 상당부분 복지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다문화상담을 위한 보수교육으로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준별 교육콘텐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8].

다문화 종사자의 전문성 신장은 한국 내 다문화 지원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양미진, 고흥월, 이동훈, 김영화[9]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다문화 상담은 현장에 있는 다문화 상담자의 준비도와 인력 부족 및 효과적인 상담방법 개발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추가 교육내용에서도 현장실습(교육), 이민자 상담 실무, 다문화사회 이해를 위한 국내정착 이민자의 경험·사례 특강 등의 현장 실습과 상담위주의 교육이었다[10]. 이렇듯 지금까지 다문화 교육은 교육방식 및 콘텐츠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보수 및 양성교육과 관련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통합적 차원의 교육시스템 보완, 교육시간 및 현장실습 시간의 확대, 보수교육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8].

그렇다면 다문화 대상자를 상담하는 전문 인력들의 자질과 역량은 어떠한 방식으로 길러줄 수 있을까? 다

문화 상담에서 상담자는 한국인이고 내담자는 외국인이라는 대상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상담의 내용 또한 문화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 만큼 다문화 상담자의 문화적 편견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상담의 효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최근 상담연구들에 의하면 상담자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다문화상담에 있어서 상담자 요인은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문화 인력의 상담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다문화 상담교육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이 경험한 다문화 상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다문화상담자 교육은 무엇인가?

II. 문헌고찰

1. 다문화상담 교육

다문화상담 훈련의 대상자는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감수성 함양 교육모듈[11]도 있고, 대부분은 다문화 종사자들의 역량강화[8]에 대한 연구들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의 대상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강사이거나 통번역 및 방문 교육 지도사를 포함한 이주지원기관의 팀장 등의 다양한 다문화지원 관계들을 포함하고 있어서[7][10][12], 다문화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초점을 두어야 할 우선 내용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에 다다르게 한다.

민무숙 외[7]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전문교육은 연구에 기반 한 핵심역량 모델 정립이 미흡한 단 년도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모든 집단이 공통적으로 이주자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심층상담을 위한 역량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다문화 전문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행동특성을 통한 교수전략을 개발하

거내[13], 다문화교육 대상자별 교수-학습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14]. 하지만, 다문화상담 교육의 효율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기존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2. 다문화상담 교육과정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33과목 총 80시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중 이민자 상담기법과 관련된 내용은 3시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국적법을 비롯한 제외동포법의 이해나 이민자 출신 국별 문화이해 강의가 대부분이다[12]. 다문화상담의 영역은 정착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역사회와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상담의 비 효과성은 교육과정과 훈련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과 상담을 할 때 효과가 없었던 주요 이유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칠 문화적으로 충분한 교육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다문화 교육과정이 매우 필요함을 인식하는 지금조차도 어떤 개념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15](제인용).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에서 진행되어 온 다양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들은 결혼 이민자 및 자녀,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 대상자' 중심의 운영, 다문화 교사 교육 프로그램[11]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제로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외에 다문화 전문 인력들을 어떤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다문화 지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중요한 것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동화'교육이 아니라 '공존' 또는 '상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소수집단과 주류집단을 망라한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적 역량을 갖추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12]. 특히, 다문화 종사자들은 내국민과 이주민 간 중간 매개자·소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상담체계 구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3].

표 1. 다문화상담 교육 주요 선행연구

다문화상담 교육 변인		연구자(년도)
교육 대상	대학생	이재경외(2010)[11]
	다문화감수성 함양	민무숙외(2009)[7], 이성순외(2011)[12], 정지윤(2010)[10]
필요 교육 내용	종사자	다문화 종사자 역량강화
	심층상담을 위한 역량부족, 전문적인 상담교육에 대한 요구	민무숙외(2009)[7]
전문 상담 교육	현장실습 상담위주의 교육 필요	정지윤(2010)[10]
	다문화상담자의 준비도, 효과적인 상담방법 개발 미흡	양미진외(2001)[6]
다문화 상담론 텐츠	표준화된 상담체계 구축	강기정외(2011)[3]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준별 교육콘텐츠의 필요	김승권외(2010)[8]
	효과적인 다문화상담 교육과정	하혜숙외(2011)[15]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1개의 온라인 대학의 재학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는 서울·경기지역의 도시 및 농촌지역 다문화 현장 전문가 총 1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No	성별	나이	최종 학력	직위	관련 자격증 및 학위	다문화상담경력
1	여	52	대졸	기업 내 다문화 지원팀장	사회복지사	4년
2	여	48	대졸	기업 내 다문화 지원팀원	사회복지사	4년
3	여	49	석사	공공기관 새터민과 다문화 진로상담사	직업상담사	4년
4	남	35	석사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팀장	다문화상담 심리학석사	6년 2개월
5	여	33	박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다문화상담사	3년
6	여	56	대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		4년
7	여	26	대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발달치료사	언어치료사	2년 1개월
8	여	28	대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년 6개월
9	여	57	박사 수료	사설 상담센터상담원	다문화상담사	1년
10	여	58	석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원		다문화상담사 2년
11	남	58	석사 수료	사설 상담센터 소장		다문화상담사 1년 2개월

2. 연구절차

포커스 그룹은 3-5명씩 3그룹으로 다문화 현장 전문

가 11명이 참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간은 2012년 4월~6월까지 3개월 기간이었고, 총 3회에 걸쳐 다문화지원 기관 및 연구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각 그룹 당 90분~1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인터뷰 사회는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질적 연구로 논문을 2편 이상 쓴 연구자 2명이 직접 실시하였다. 다문화 현장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은 다문화 상담 시 겪는 어려움 및 다문화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다문화적 태도와 인식, 다문화적 지식, 다문화 상담 기술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였다. 녹음내용은 모두 전사하였고 분량은 A4용지 100매 내외였다.

3. 분석방법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후 자료는 Kruger[16]의 포커스 그룹 4단계 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면접자들을 모아 면접의 방향이나 질문을 합의하고, 면접을 하면서 해야 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2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하고, 면접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애매한 부분은 질문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게 한 후 확인을 함으로써 면접 내용을 분명히 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3단계에서는 면접 직후 면접한 내용에 중요한 주제를 점검하고, 특이사항이나 예상과 달랐던 내용 등을 점검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녹음한 면접 내용을 전사하였다. 그런 후 참여자들의 모든 반응에 개념들을 명명하고, 유사한 내용을 범주화하였으며, 그 후 주요 범주를 정리하였다. 평정 작업에는 교육학과 상담심리 박사 2인과 교육학과 석사 졸업생 1인이 참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교차분석 결과

평정 작업은 크게 3단계를 걸쳐 이루어졌는데, 1단계에서는 한 사례의 처음 10분을 각자 평정을 한 후 1차 합의를 하였다. 이는 처음 정했던 개념을 재확인하고,

의견이 다른 개념 및 범주에 대해 조율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를 통해 평정자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치율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이 효과적인 상담기법에 대해 수용, 스스로 선택하게 하기, 빈의자 기법, 의사소통 능력 향상시키기, 시부모님에 대한 이해, 분노다루기, 호흡이완, 고부간의 관계 축진 등 매우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그러나 면접자의 구체적인 설명 요구에도 대부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언급하여 그 효과가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고부간의 관계 축진과 같이 그 효과가 불분명하게 언급한 상담기법은 삭제하기로 하고,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중심의 가족 치료와 같이 상세하게 분류한 것은 가족치료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례의 남은 부분을 각자 평정하였으며, 그 후 2차 합의를 하였다.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조율을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평정자에 따라 자기개방 또는 자기노출로 개념을 달리 정리하였다. 평정자들의 합의결과,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것이 자기노출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노출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상담자 자기노출을 통한 공감대형성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평정자들은 내용에 따라 존중, 무시하지 않고 솔직한 태도, 진심 등으로 평정하였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통합하였다. 그 외에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문화가족이해와 합쳤으며,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전략의 하위영역으로 선정했던 실무자의 변화는 상담전략이라기보다는 효과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평정하게 한 후, 평정한 결과가 다를 경우 평정자 2인이 일치한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3명 모두가 일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다시 합의를 하였다. 예를 들어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가 이제 상담자들 용어가 많잖아요. 어려운 걸 쓰면 잘 몰라서 쉽게, 쉽게 해 주고”의 경우 평정자 A와 B는 효과적인 상담접근으로 하였고, 평정자 C는 내담자의 특징으로 평정하였다. 따라서 평정자 2명이

일치한 효과적인 상담접근 중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으로 결정하였다. 그 외에 외국인 접촉 경험은 외국인 접촉경험을 통한 공감의 폭 확대로, 열정은 힘든 상황에서도 도와주려고 하는 열정으로 한국 상담자에게 털어놓기 힘든 주제가 있음은 상담자에게 선별적인 문제만 상담으로, 좋은 한국 멘토 연계는 자국민이 아닌 한국인 멘토와 연계로 내용 등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5개의 범주와 15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표 2]와 같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화 확보를 위해 다문화상담 관련 질적 연구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다문화상담 수련감독자 1인에게 검수를 받았다.

표 3. 다문화상담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상담교육 방안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범주	하위영역	개념	연구자(년도)
인적자원의 문제	마인드 있고 전문성 있는 상담자 확보의 문제	다문화적 역량을 갖추지 않은 한국 자원봉사자 활용	강기정 외(2008)[3]
			-
	별도의 다문화상담자 교육 부재	다문화상담자로서의 준비과정 미흡	주은선외(2010)[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17]
			주은선외(2010)[2]
상담체계 및 환경의 문제	단기 효과성 중심의 실적위주 평가	대상자 선정의 문제	-
			-
	다문화지원 기관의 양적 확대로 인한 서비스 전달체계 습득의 어려움	다문화 아동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부재	주은선외(2010)[2]
			-
상담 시 어려움	시간과 공을 필요로 함	내담자의 다양한 변수로 인한 지속적인 상담의 어려움	-
			-
	내담자 문제구분의 어려움	상담과 직접적인 문제해결 간의 갈등	-
			-
상담기법	동정심을 유발하는 역전이 경험	상담자 자기노출을 통한 공감대 형성	주은선외(2010)[2], 최명민 외 (2009)[19]
			-
	충분한 지지와 격려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	-
			-

효과적인 상담접근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자부심 갖게 하기	-	
		이해하기 쉬운 용어사용	-
		대체 의사소통방법으로서의 매체치료	-
		자국민이 아닌 한국인 멘토와 연계	-
주의점	권위주의적 교육자 역할 지양	-	
		상담자에게 선별적인 문제만 상담	-
		각별한 비밀보장	-
		상담의 수단화	-
필요한 다문화적 지식	대상자에 대한 문화적 특징 및 개인차 이해	강기정(2012)[20], 한재희(2004)[21], McPhatter et al. (1997)[22]	
		다문화 지원 정책 및 법률적 지원제도의 이해	-
		일반상담의 원리를 기초로 한 다문화상담	강기정 외(2008)[3]
		다문화가족상담	강기정 외(2008)[3]
다문화상담 지식	다문화 개입프로그램	-	
		특수 사례에 대한 주의점	-
		편견 없는 태도	Cross et al. (1989)[18]
		김광수(2008)[23], APA(1999)[24], Neukrug(2011)[25], Sue&Sue (2003)[26], Sue&McDavis(1992)[27]	
다문화적 태도와 인식	다문화 이해에 대한 개방성	타문화 이해에 대한 개방성	-
		힘든 상황에서도 도와주려고 하는 열정	-
		외국인 접촉경험을 통한 공감의 폭 확대	-
		다문화적 의사소통능력	-
상담자 역할과 자기관리	자원동원성을 포함한 다중역할	McPhatter et al. (1997)[22]	
		상담자의 자기관리	-
		상호문화이해 체험 교육	-
		간접적 사례VTR 시청2	정의철(2011)[28]
효과적인 다문화상담의 교육방식	실제 사례위주의 강의	-	
		상담실습 병행	Mitchell&Triandis (1971)[29]
		바쁜 업무로 인한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의 필요성	-
		경험의 차이를 공유하는 토론회 수업	-

2. 다문화상담의 문제점

2.1 인적자원의 문제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다문화 상담을 하려고 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마인드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다문화 상담자를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다문화 상담자가 어떤 마인

드로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사고고락을 좌지우지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3은 다문화지원 대상자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적인 자세로는 불가능하며 심리-복지-고용의 팀 접근을 통해 다문화지원 대상자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담당자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헤어지느냐, 가정은 잘..- 중략- 일단 저소득 계층 취약 계층은 굉장히 이 마인드를 먼저 기초 작업을 해야 되요 베이스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담자 같으면 그냥 행정만 하는... 그래서 사실 저도 항상 위에 회의를 가거나 V.I.P도 사실 만나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복지, 고용이 연계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이게 전문적이 능력이 보유된 상담자를 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상담하는 데서는,, 틀이나 스킬보다는...” (전문가 3)

다문화상담 현장 전문가는 처음 실무를 접하면서 힘든 점을 토로하면서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준비과정이란 단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상담자로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5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고 사고가 개방적이지 않는 한국 자원봉사자 선정이 문제라고 말한다. 다문화상담 현장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인력구성의 문제는 상담을 하는 당사자들 뿐 아니라 다양한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나 연계 인력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한국여성분들은 사고가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주입을 하시죠. 제가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교육수준도 워낙 높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조정이 되는데. 멘토링이 망한 이유가 교육수준도 낮으신. 그런데 사실 50-60대분들은 뭐 중졸 고졸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학력이 문제가 된다고 하기 어렵지만 그거에 대해서 수반되는 열린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욕은 앞서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친구 분들이 적극적으로 멘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겁나는 거예요. 본인이 괜히 자칫 멘토 해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조바심이 있으셔서 털 하시는데. 적극적이긴 하시는데.” (전문가 5)

2.2 상담체계 및 환경의 문제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별도의 다문화상담자 교육 없이 상담을 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상담 업무 매뉴얼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특별히 다문화 지원 전문기관이 아닌 경우, 한국 내 지원 대상자만으로도 벽찬 실정에서 다문화 지원 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다문화상담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일부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최근에 개설된 대학 내 다문화상담 전공이나 다문화상담 관련 학회의 워크숍을 통해 다문화상담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사전 교육 없이 현장에서 부딪히며 상담 시 어려움을 해소하다보면 다문화 현장 경험이 있는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각별한 고충이 예상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교육 자체만 별도로 하지는 않고... 우리는 사실 센터에서 많은 구직자가 있지만 다문화가, 뭐 다문화담당자 취업알선 창구에 한 명을 정해 놓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반 우리나라도 넘쳐나는 상황이라...” (전문가 3)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또한 실적위주의 다문화상담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단기효과성 위주 일회성 지원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다문화 관련 센터에 가지만 장기적인 상담은 실적을 많이 낼 수 없어 후순위로 밀리거나 서비스 지원을 받는 내담자들만 계속해서 여러 지원을 받게 되는 내담자의 이중수혜, 실적을 위한 내담자 동원 등 한국 내 다문화지원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었다. 전문가 1은 이러한 단기효과성 위주의 지원이 결국 내담자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고 내담자들도 이러한 형식적인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미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주는 부분은 아니고, 일시적인 포맷의 그니까 쇼에 동참하게 만든 부분이 있는 걸 본인들도 이제 안 거예요.” (전문가 1)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전문기관 부재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흡을 들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를 위한 백화점 나열식 서비스 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의 자녀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줄 아동 및 청소년 지원체계는 매우 극소수이어서, 연계를 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또한 정부의 다문화지원 뿐 아니라 기업이나 민간기관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 체계를 일일이 습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문제점은 다문화지원 기관은 존재하지만 정작 내담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문화지원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해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양산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허브기관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상담센터를 알려드리거나 뭐 이런 걸 알려드리고... 전문적으로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7)

또한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열악한 상담환경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 10은 상담실에서 털어놓는 사적인 내용이 방음이 되지 않아 외부에 누설이 되기도 하고, 상담실의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불안정하게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무수히 많은 다문화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안정적인 상담실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과대지원을 해주는 몇 곳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담환경의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나 현실적으로 한국 내 다

문화상담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상담실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2.3 상담 시 어려움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상담 시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전문가 10은 언어가 안 되어서 상담이 불가능할 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통역사가 항상 상주하지 않아서 야간이라든가 주말 등에는 상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대안으로서 사진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다문화상담자로서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조선족은 말은 통하니까 일단.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필리핀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니까 한 3년을 살았어도, 어떤 상담의 미묘한 얘기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베트남하고 한국말, 또 거꾸로 하는 한영 뭐 영한사전처럼 막 찾아가면서 하는 거죠. - 중략 - 우리가 왜 말은 그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통역사가 물론 저희 거기에는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중국 사람은.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또 밤에 가서 어떨 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밤에는 통역사가 없으니까 사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니까 적어도 다문화를 상담하려면 우리가 그 나라 말에도 조금 우리가 인사말 정도는 알아야 되고.” (전문가 10)

전문가 3은 다문화상담 시 어려움에 대해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상담이라고 표현한다. 즉, 내국인에 비해서 한국사회 문화적 적응과 더불어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르는데도 시간이 걸리며 또한 낮은 한국사회에서 물어볼 말이 많고 쉽게 상담자를 믿지 못하는 다문화 내담자의 특성으로 인해 통찰이나 라포 형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다문화상담자로 하여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을 하면 이게 언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통해서 상담 이런 쪽은 안 되고 고객

상담 이런 거는 안 되고... 기능과 기술 습득시켜서 단기간 취업할 수 있는 데로 많이 하는 거죠. 그니까 저한테 오는 내담자들 경우는 결혼이민자들이 예전에는 뭐 저쪽에 이제 저는 중국계통 그 쪽이 많았는데, 요즘은 베트남, 태국... 뭐 센터에서 태국에서 결혼한 그 친구를 인턴으로, 우리도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인턴으로 써야 되는... 그 친구가 이제 와서 하는 거 보면 참 우리 보통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직무능력을 보면 시킬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니까 단순한 걸 위주로 점진적인 어떤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 시간을 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거, 시간을 들이고..." (전문가 3)

낮선 한국 땅에서 다문화 상담자를 만나 마음은 터놓을 수 있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지만 대상자들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지속적인 상담이 어렵고 중도탈락이 흔하다고 말한다. 그밖에도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문화적 차이를 포함한 언어소통의 어려움, 지원과 자립간의 갈등으로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전문가 5에 의하면 상담에서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의 차이, 간접적 메시지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몇 시까지 와라 했는데 안 오시고, 내일은 쉰다. 며칠을 얘기했는데도 오히려 오시고. 그리고 이게 상담으로 들어가면 더 하다는 거지요. 언어, 문화 다 포함돼요. 특히나 눈치 같은 것. 눈치 있게 행동해야 돼요? 머느리는 이렇게 해줘야 돼. 간접 메시지를 보내면 이해 잘 못 하시고."(전문가 5)

전문가 4는 다문화상담을 하다보면 내담자의 문제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인지를 민감하게 구분하고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담에서의 딜레마는 다문화지원 대상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상담개입 전략을 세울 때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음으로서 문제 중심의 부적절한 접근이 될 수도 있고, 초심 상담자의 경우, 모든 문제를 문화적 차이에서 귀인 하는 시행착오를 겪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 문화적인 차이도 있긴 한데, 문화적으로 기인을 하는 게 있긴 한데 애 성격이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전문가 4)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상담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내담자를 도와야 할 때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해줄 수도 없고, 해결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자에게 의지하는 내담자에게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어떤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상담과정에서 대부분이 저개발 국가에서 온 다문화지원 대상자를 대상하면서 이들의 순수함에 동정심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제3국이나 중국, 조선족에게 지나친 동정심이 생기는 역 전이를 경험하였다고 회고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상담 지원 대상자 특성 요인이 상담자로 하여금 갈등과 역전이 문제를 겪게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3.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전략

3.1 상담기법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다문화지원 대상자들을 상담하면서 효과적이었던 상담전략을 다양하게 소개하였으며, 이는 상담기법, 상담접근 그리고 주의점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상담기법의 측면에서는 상담자가 자기노출을 함으로써 다문화 내담자와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상담자의 자기노출은 다문화내담자들이 자신과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 못할 것 이라는 편견을 줄임으로써 상담자와 관계형성을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 전문가 11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생했던 경험이 다문화내담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상담자 역시 외국생활에서 타국인으로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다문화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쉽게 개방할 뿐만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저도 제가 어릴 때는, 경상도 경북 영주 거기가, 제 각 중학교 다닐 때 까지만 해도 전기불이 없었어요. 호통불에 공부했거든요. (중략) 그래서 이제 대개 한국에 온 다문화 가족들이 일단 돈 벌러 이제 어렵게 왔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면 일단은 라포 형성이 좀 빠르죠.” (전문가11)

다문화내담자들은 남편이나 시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모국어를 사용하지 말 것과 출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요를 받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내담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거나 모자란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과 자신의 출신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인식해 오던 다문화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자가 모국어와 한국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줌과 동시에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개입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다문화 가족을 해 보니까 자녀들이 한국말도 어정쩡하고, 엄마의 나라 말도 어정쩡한 거예요. (중략) 첫째 남편들이 이제 중국 그 거기서 오면 너 조선족인 거 절대 밝히지 마라 애들한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2년 전에 이제 조선족 애를 딱 만나 갖고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이랬더니 막 울어요. 그래서 “얼마나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국에 가서 일을 해 주실 일꾼인데 이중 언어 아무나 쓸 수 있나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듣는 순간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말하니까 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네 딱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 남편이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중국에서 온 거를 아이들이 알면 안 된다고.”(전문가 10)

이처럼 다문화내담자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와 가족에게서 적절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들의 격려나 칭찬 그리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것 등은 그들이 이국땅인 한국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응해나가는데 힘이 된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 10은 상담자가 모르는 말을 다문화 내담자가 사

용했을 경우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쳐 달라고 함으로써 다문화내담자에게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존중받는 느낌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저는 상담하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적어서 서로 소통합니다. 저도 모르는 것 있으면 가르쳐 달라하고 ..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거를 그분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가르치려는 시어머니만 보다가 저를 보고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니까...그게 좋은 거 같기도 하구요.”(전문가 10)

3.2 상담접근

상담접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내담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는 다문화내담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용어를 사용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상담용어나 외래어 등은 많이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다문화내담자의 수준을 고려한 언어 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다문화내담자들의 상당수가 한국어가 미숙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되거나 의사소통은 되더라도 정서 표현 등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체 의사소통방법으로써 미술치료와 같은 대체치료를 통해 접근하는 것 또한 우 효과적이라고 언급한다.

“온지 얼마 안 된 외국인 부인들을 상담할 때 언어소통이 어렵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베트남, 중국 통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이 아닐 때 저녁때도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 많이 힘들어요. 특히 3년이 안된 사람들.. 저 같은 경우 사전에 찾아서 해결해요. 하지만 더 많은 통역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라는 게 언어가 완전한 안 되면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술치료가 효과적이에요.”(전문가 10)

한국인 멘토와 연계해주는 것도 다문화내담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전문가 6은 먼저 한국에 와서 적응을 시도한 자국민들을 멘토로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다문화내담자들은 자국민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멘토로 선호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 사람들의 사고와 이런 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향 언니니까 좀 더 연장자가 이렇게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분들은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사고를 듣고 싶고 한국에서 살았던 언니들 동네에서 몇 명은 한국 언니를 착하신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적응력이 빨라요. 문고 배우고 100% 수용을 하려고 노력해요.” (전문가 6)

3.3 주의점

개입을 할 때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점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있다.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권위주의적 교육자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문화 지원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개발 국가에서 오는데다가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이 의도하지 않을 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 그 지방의 고유한 특성이 강해 다문화내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지시적, 교육적 태도는 다문화내담자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관계 형성 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비 권위주의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권위적인 성향이 없으셔야 돼요. 가르치는 게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 못하면...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더 개방적이지 않잖아요. 자기 지역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참아라.’ ‘맞춰라.’ 하죠.” (전문가 5)

일부 다문화내담자들은 결혼을 단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상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상담자가 종결을 하면 쉽게 다른 기관으로 가서 상담을 한다고 한다. 즉 다문화내

담자들이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에 오거나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내담자 중 이런 내담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다문화지원기관들 역시 실적 경쟁 때문에 다문화내담자가 상담소핑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데, 이는 다문화내담자나 다문화 현장 전문가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다문화상담자는 소통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상담 소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많아지면서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을 제기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20회기 이상 계속 상담이 진행되다보니 무엇이든 다 저에게 물어보고 의존하는 경우도 많구요. (중략)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내담자들이 의존적이 되고, 처음에는 이들이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도와주는 건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도 해주길 바라요. 그래서 요즘은 회기를 정해 놓는데, 제가 안 해주면 또 다른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요. 닥터 소핑하듯이 하는 거죠.”(전문가10)

다문화내담자들은 비밀보장이 안 돼서 가족이나 지역주민들이 아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하며, 특히 건강문제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나 행동적 제약이 클 수 있어 상담자에게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 또한 전문가 6처럼 다문화 현장 전문가보다는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굳이 이야기 해서 자존심 상할 만한 이야기는 숨기는 경향이 많다고 하므로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필요한 다문화적 지식요소

4.1 대상자 이해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문화 지원 대상자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문화적 특징 및 개인차를 이해하고, 어떠한 지원정책과 정착지원제도가 있는지 법률적

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문화 지원 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문화권인지 농촌문화권인지에 따라 그리고 출신국가의 자녀 양육방식이나 학업과 취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머리를 쓰다듬는 사소한 행동들도 태국의 경우에는 예의 없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이 다문화 상담은요, 저희 지역도 8개 지역 아이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나라마다의 특성이 다 있잖아요. 뭐 문화도 다 틀리지만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의 문화를 다 알아야 되요.”(전문가 1)

다문화 지원 정책이나 법률, 제도에 관련된 지식이 있을 때 대상자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다문화지원 대상자들이 상담자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 놓는데,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연계지원을 하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 정책이나 지원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특히, 전문가 1은 이러한 정책이나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할 때 현실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정책에 관한 문제를 이제 미리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다문화 가족 아이들은 사랑카드라는 걸로 해가지고 유치원을 무료로 해요. 유아는 놀이방을 이제 무료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째 얘기지만, 경제가 좀 좋지 않은 가정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카드가 한 달을 먼저 선금을 내야 되요. 30만 원인가 내고 유치원에 있으면 한 달 뒤에 카드로 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정책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적을 받는 것까지를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버립니다, 그 친구들은. 왜냐하면 그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3개월 안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요. 근데 그 사고가 안 돼서 못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그것도 1년에 한 번 씩 바뀌어 되는데 못 하거나, 비자를 연기를 해야 되는 나 이런 부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네들은 거의 F2-9인데 거주 자격을 받는데 적어도 영주하고 거주까지만이라도 체류법을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한 5년이 넘어야 국적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전에 가점을 받아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육에 참여한 걸 갖고 하는 거예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그 부분. 또 하나는 남편이 지금은 결혼 전에 가서 교육도 받지만, 남편이 해피스타트에 동참을 해서 교육을 받은 가점이 되요.”(전문가 1).

4.2 다문화상담 지식

다문화상담 지식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다문화상담 지식은 일반상담의 원리를 기초로 한 다문화상담, 다문화가족상담, 다문화 개입 프로그램 실제, 특수사례에 대한 주의점 제시이다. 다문화적 특성만 이해했다고 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상담을 이해한 후 다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문화 가족의 어려운 점을 가족상담의 특성에서 이해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전문가 3은 다문화상담은 가족을 지지자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패밀리. 왜냐하면 남편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지. 또 뭐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 주는지. 어리지만 아이가 다 있어요, 거의. 애들이 있는지. 그래서 자세히 보고 필요하면 진짜 적극적이면 남편하고도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 누구인데 누구누구 씨가 이런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집에서 많이 격려해 주세요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이제 상담이지.”(전문가 3).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상담의 개척분야에서 어떠한 개입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아이디어를 내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이때 다문화 개입프로그램 실재를 전달해주는 교육이 포함된다면 다문화상담자로서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즉, 실제 개입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신의 지역 내 적용방안을 탐색해볼 수 있다든지 창의성을 발휘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할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말씀 듣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그니까 특히나 농촌이나 이런 데는 초창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셨던 분들이 재밌는 사업을 하셨던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공동농업조합 이런 거 만들고 다문화 가정끼리 무슨 뭐 지역특산품을 만들어 판다든지, 뭐 이런 재밌는 사업을 하시는 게 되게 많아서..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사례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면.. 이 분들한테도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그런 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그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든지, 혹은 이제 되게 작은 거 같아요. 사실은 남들이 안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행해지고 있던 건데 대상을 바꾸고 그런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이 첨가 되면서 가능하게 됐던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브레인 스토밍 차원인거죠. 그니까 그 보고 약간 그 ‘아 나도 한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전문가 4)

또한 다문화상담에서 중요한 이슈인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 상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때 전문가 8에 의하면 특수 상담사례에 대한 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것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하였고, 다문화상담자 교육에서 제시해준다면 안정적인 상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가족 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장기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들은 뭔가 더 특수적으로 유의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뭘 알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생각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었거든요.”(전문가 7)

5. 다문화적 태도와 인식을 갖춘 상담자 자질

5.1 다문화적 태도

이질적인 문화 및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전문가 5는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 대한 고정 편견으로 적용되면 더 위험하다는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훌륭하고 자질 있는

다문화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 지원 대상자들을 한국인과 똑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편견 없는 태도로 인사말, 감사 인사와 같은 간단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다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이라 명명하였는데,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다문화지원 대상자들로 하여금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나 상담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일 필요한 게 그 나라에 대한 자기만의 편견 그거를 빨리 없애는 게. 편견을 깬다고 해서 문화적인 차이를 전혀 모르면 안 되고요 오히려 알고 알기 때문에 그거를 버려야지. 중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다 하든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른다는 자세로 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것들도. 어쭙지 않은 인식으로 내가 만난 한두 명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 이게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다문화에서 조금 일했다 하시는 분들이 더 무서워요.”(전문가 5)

그 외에 다문화지원 대상자를 상담하기 위해선 그들에 대한 사명감이나 돕고자 하는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문화지원 대상자를 상담하는 데는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며 따라서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담보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5.2 다문화적 인식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에게 상담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키우기 위해 외국인 접촉 경험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문가 11처럼 직접적으로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많은 경우, 다문화 지원 대상자들을 이해하기 쉽고 내면을 탐색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직접적으로 외국 생활을 통해 다문화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두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나라별 사람

들과의 인터뷰, 잦은 교류, 대사관 방문 그리고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시야를 확대하고 다문화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감의 깊이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어, 뭐, 외국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무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미를 뺀 5대양 6대주는 거의 다 다녔죠, (중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경험은 사실은 좀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만나면 일단 그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가는 게 서투르지 않으니까.”(전문가 11)

5.3 상담자 역할과 자기관리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단순히 상담자 역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제공, 면접 컨설팅, 한국어 언어교정자 역할 같은 것도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역할이나 동행면접을 갈 경우 임금협상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컴퓨터와 같이 다문화 지원 대상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야 할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문화 지원 대상자를 상대로 지원하지 않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연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자원동원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다문화 현장 전문가를 양성할 때 기준에 상담자가 가져야 했던 기본 상담능력이나 자질 외에 다중역할, 적극적인 자원 동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게끔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다중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자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여러 역할을 수행하다보면 소진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상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죠. 그니까 우리가 왜 자꾸 가 봐야 알고.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이런 거 까지 다 하고. 저는 데리고 동행면접 가면 임금협상까지도 거기까지도.”(전문가 3)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청소년수련관, 상담지원센터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민간 NGO들이 굉장히 많

아요. (중략)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일부 청소년 관련 아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자발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안 되던 것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문화청소년 관련해서 상담을 하지 않던 곳도 있거든요. 그니까 별로 관심이 없거나 대상자로서의 어떤 그 포괄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계를 하면 하기도 하니까.”(전문가 4)

6. 효과적인 다문화상담의 교육방식

6.1 체험교육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체험교육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상호문화 이해 체험 교육이 다문화 지원 대상자 이해를 위한 문화적 감수성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전문가 11에 따르면 다문화 지원 대상자 출신국의 “영사관 방문을 통한 문화체험”이 아주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었고 다문화 상담자 뿐 아니라 다문화 지원 가족들 모두가 이러한 문화체험을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 지원 대상자만 일방적으로 동화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서로의 문화를 함께 이해하려는 체험교육이 효과적인 방식인 듯하다.

“그 나라 체험을 직접 하게 하거나 영사관 같은 데 가서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는 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우리 기관에 그것을 건의해서 매우 칭찬 받았어요. 이건 상담자에게도 좋고, 그 가족들도 해보면 좋은 거예요. 그 나라의 기본 문화를 서로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알면, 서로 도움이 되요.”(전문가 10)

물론 상담자가 직접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다문화 체험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간접적인 방식의 VTR 시청각 교육이라든지 각 민족별 인터뷰 내용들을 포함 시키는 것도 다문화상담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실습과 토론 중심의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사례위주의 강의가 현장에서의 적용능력도 길러주고

다문화상담자로서의 성장에 많은 아이디어를 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상담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강의를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중 자신이 가능한 시간을 조정하여서 들을 수 있는 online교육이 필요하며, 이때 임상실습이 병행된다면, 학문적 교육의 제공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상담실제와 실습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성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다문화상담 교육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6.2 실습과 토론 중심교육

또한 전문가 6은 경험의 차이를 공유하는 토론식 수업을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 현장에서의 경험실제를 토론을 통한 공유는 학습자들끼리의 공감대 뿐 아니라 교수-학습자 간의 눈높이 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대부분 사례를 들어주시더라도 개인 성향.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토론식 수업이 아무래도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사람과 청자하고의 경험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유사하면 참 좋은데.. 그것도 웃긴 거죠. 다소 토론식으로 그 쪽의 의견을 듣고 오히려 거기에 피드백을 주는 게 낫다. 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리더를 해야지. 강의식으로 하는 거는...”(전문가 5)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상담지원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상담전략 및 필요한 상담자 자질, 지식 등을 알아보고 이를 질적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상담자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다문화 상담을 실시하는 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인적자원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재 별도의 다문화상담자교육이 부

재하고, 다문화 상담자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 또한 체계적이지 못해 마인드 있고, 전문성 있는 상담자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관련 기관에 종사자들을 위한 체계화되고 깊이 있는 교육이 부재하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6], 다문화내담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적인 접근과 더불어 그들의 심층적인 심리적응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다문화 이해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다문화 현장가의 전문성이나 경력수준별로 체계화된 상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상담체계 및 환경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다문화내담자를 위한 전문기관 부재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내담자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1]. 따라서 지원기관의 부재, 지원기관의 중복서비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의 연계망 구축과 지속적인 상담사례 및 수퍼비전 정례화 등의 안정적인 상담체제를 이뤄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실적위주의 다문화상담 관리로 다문화내담자들의 이중수혜 또는 다문화내담자 동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상담 시 언어차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는 비해 다양한 변수로 지속적인 상담 진행이 어려움 등이 문제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전략 중에는 이중 언어사용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는 등 격려와 지지가 효과적인 상담기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내담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가족이나 사회에서 완전히 수용되지 못하고 좌절과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에[30], 격려나 지지 등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들의 적응을 돕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상담자의 자기노출 역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낯선 이방인 상담자에게 쉽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한국 내 다문화 내담자들이 대부분 공산주의 사회나 동남아시아의 수직문화권 내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감정표현이 힘들고 따라서 상담자의 자

기노출이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담자 자기노출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공존함에도 불구하고[31],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은 왜 자신들의 자기노출이 상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지 추후 연구를 통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언어차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용어의 사용, 대체의사소통방법으로서 매체치료 그리고 한국인 멘토와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효과적인 상담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교육자 역할을 지양해야 하고, 비밀보장에 각별히 신경써야하며, 상담을 수단화하는 내담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최명민 등도[19] 다문화내담자를 약한 계층으로 보고 동정과 연민을 바탕으로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다문화상담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면서 효과적이라고 언급된 상담기술 및 상담접근을 활용한 상담수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다문화지원 대상자들을 상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다문화상담자는 다문화지원 내담자의 문화적 특징과 개인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희[21] 역시 내담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담 장면에서 긴장이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한 것 또한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다문화상담자 훈련에서 문화적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선행연구[22]에서도 말해주듯이 상담자-내담자 간의 문화적 차이는 문화적 이해방식 및 언어차이, 내담자 문제구분을 힘들게 해 다문화 상담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유발하였다. Sue, Arredondo 및 McDavis[26]가 다문화상담자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는 다문화적 지식, 다문화적 행동, 다문화적 기술과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의 다문화현장가들은 다문화적 지식에 관련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지원 대상의 문화적 특징이나 개인차 외에도 그들을 위한 지원정책 및 일반 상담의 원리를 기초로 다문화상담, 다문화가족상담, 다문화개입프로그램과 같이 전문화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일반 상담자와 달리 다문화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능력을 강조하는 결과로서 다문화상담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상담자의 자질로는 다문화적 태도와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즉 다문화지원대상자나 문화에 대한 편견 없이 대하고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Neukrug[25]는 다문화 상담자의 역할 중 내담자를 만나기 전에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들에게 적절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기법을 숙지하며, 바람직한 태도와 신념을 가지도록 한다. 문화적 가치의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적 역량이 상담자의 임상적 역량의 주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23][24], 다문화상담자에게 다문화적 태도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이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적 태도 외에도 외국인과의 접촉경험을 통해 공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다문화적 인식을 갖추는 것이나 상담 외에 부모 역할, 임금협상, 자원동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 또한 다문화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문화상담자 역량의 최근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권력과 차별, 억압 및 불균등과 관련된 사회적 정의와 옹호[32]가 한국의 다문화상담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요소임을 입증해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식으로는 다문화지원 대상자의 영상관방문처럼 체험교육이나 토론 그리고 상담실습을 들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상담자 훈련에서 반성적 성찰방식의 효과성이나 경험에 근거한 심리학 실습[23]을 강조하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 또한 지역적 거리나 바쁜 업무를 고려했을 때 off-line 교육과 on-line을 병행한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상담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다문화지원 대상자들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상담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전문 인력의 부족, 체계적이지 못한 지원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지원 및 관련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다문화지원 대상자 및 현장 실무자들이 일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다문화상담자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상담자 양성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적 능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교육과정을 만든다면 뛰어난 다문화상담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훈련은 다문화 상담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 전문 인력의 역량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의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현장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지만, 서울, 경기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일부 참여자의 경우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관련 자격증이나 다문화 상담경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장에 다문화 전문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농어촌도시의 특성을 고르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다문화 상담 경험이 많은 상담 전문가를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상담자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이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및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할 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내용을 만들고 직접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전공의 다문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문화상담자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심리학 전공자들의 다문화상담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다문화상담기술에 대한 심층 연구가 진행된다면 다문화 현장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전문상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원진숙,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교육*, 서울: 사회평

론, 2010.

- [2] 주은선, 이현정,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제4호, pp.817-846, 2010.
- [3] 강기정, 이무영, 강복정, “다문화 가족상담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3호, pp.225-245, 2011.
- [4] 김현아, 정성란, “새터민의 가족상담 모형 개발. 상담학 연구”, 제9권, 제3호, pp.1333-1356, 2008.
- [5] 오윤자, 정민자, 라희문, 박정윤, 김상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모델 및 발전방안*, 보건복지가족부, 2009.
- [6] 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상담학 연구, 제13권, 제3호, pp.1181-1200, 2012.
- [7] 민무숙, 김이선, 이춘아, 이수영,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8] 김승권, 김유경, 강복정, 신숙자, 최준영, *다문화가족 교육관계자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9] 양미진, 고흥월, 이동훈, 김영하,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11.
- [10] 정지윤,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실태와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10.
- [11] 이제경, 박언주, 김효정, 조영주, *대학생 다문화 감수성 함양 교육모듈 개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
- [12] 이성순,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과 과제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0권, pp.241-268, 2011.
- [13] 김종철, “다문화가정 자녀의 행동특성 분석을 통한 교수전략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5호, pp.277-283, 2008.
- [14] 권충훈, 김훈희,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경험 선정 아이디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

권, 제8호, pp.293-301, 2008.

[15]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호준, 임은미 역, *다문화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11.

[16] R. A. Kruger, *Analyzing and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Focus group kit 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1999.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9.

[18] T. Cross, B. Bazron, K. Dennis, and M. Issacs, *Towards a culturally competent system of car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1989.

[19] 최명민, 이기영, 최현미, 김경진,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9.

[20] 강기정, "다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제2호, pp.153-168, 2012.

[21] 한재희, "한국의 가족문화와 다문화상담. 진리논단", 제16권, pp.117-133, 2004.

[22] A. McPhatter, Cultural competence in child welfare: What is it? How do we achieve it? What happens without it? *Child Welfare*, Vol.76, No.1, pp.255-278, 1997.

[23] 김광수, *다문화사회와 학교상담의 역할과 과제*. 서울교대 다문화연구소, 2008.

[24] <http://www.apa.org/pi/guide.html>.

[25] E. S. Neukrug,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Brooks/Cole. 2011.

[26] D. W. Sue, P. Arredondo, and R. J. McDavis,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70, pp.477-486, 1992.

[27] S. Sue and D. Sue,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Pacific Grove, CA: Brooks/Cole, 2003.

[28] 정의철,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참여적 다문

화 미디어교육 사례", *비교한국학회*, 제19권, 제1호, pp.73-113, 2011.

[29] F. E. Mitchell and H. C. Triandis, "The Culture Assimilator: an Approach to Cross-cultural Train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55, pp.95-102, 1971.

[30] 윤영주, *한국 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1] S. I. Vondracek and F. W. Vondracek, "The manipulation and measurement of self-disclosure in pre-adolescents," *Merrill-palmer Quartwely*, Vol.17, pp.51-58, 1971.

[32] C. R. ley, *Overcomming unintentional racism in counseling and therapy* (2nd ed.). Thousand O 만, CA: Sage, 2005.

저 자 소 개

김 현 아(Hyuna Kim)

정회원



- 2006년 8월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6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새터민 다문화상담, 소외계층 성인교육

이 자 영(Jayoung Lee)

정회원



- 2010년 8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1년 1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군경상담, 청소년상담, 위기상담